# 부산 대학생 “진정한 불자되겠습니다”

**범어사, 대학생 · 청년회 수계법회**
**대학생 · 청년 65명 불자로 거듭나**
**정오 스님 “선행 실천 노력하라”**
**조석주 대불련 부산지부장 취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는 2월 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및 청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기 2569년 대학생 · 청년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부산지부장 이 · 취임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2월 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및 청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기 2569년 대학생·청년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부산지부는 지부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법회에는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대학생과 범어사 청년회 회원 등 65명이 참석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서 계율을 지킬 것을 서원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지도법사 안도 스님,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 주현우 전 대불련 중앙회장, 전정순 대불련동문회 부산지부장, 이숙희 대불련 부산지부 후원회장 등이 참석해 젊은 불자들의 수계를 축하했다.

수계법회를 주관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전계사로 나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공덕이 된다”며 계율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작은 나쁜 일도 결국 더 큰 죄로 돌아올 수 있다”며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고, 착한 행동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공덕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했다.

이어 “나쁜 일을 삼가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오늘 계를 받는 것은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계법회 후 대불련 부산지부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정 전임 지부장이 이임하고, 조석주 신임 지부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조석주 신임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불련 중앙회장을 지내며 전국의 불교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대불련의 가치와 역할을 깊이 깨달았다”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연대와 실천이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부산지부장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학생 불자들이 보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전임 부산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직책을 내려놓지만, 계속해서 함께하며 부산지부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지난 1년간 애써온 김은정 지부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롭게 소임을 맡은 조석주 지부장이 대학생 불자들이 자유롭게 불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국선원 안국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환철 학생이 제24기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대불련 부산지부는 젊은 불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교 신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주요 사업으로 △문화법회(토크콘서트) △연등축제 장엄등·행렬등 준비 △체육대회 △문화탐방 △템플스테이 등을 계획하고 있다.

## 부산생명나눔·대불련 부산지부 MOU

**2월 12일 홍법사서 협약식**
**대학생 생명나눔 실천 기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조석주)는 2월 12일 홍법사에서 ‘생명나눔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홍보이사 법경 스님을 비롯해 박동범 사무국장, 조석주 대불련 부산지부장, 김은정 전 지부장, 권혜진 대동대 불교동아리 지회장, 황지영 대동대 불교동아리 부지부장, 김도영 동명대 지부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앞으로 △‘공감 나누기 프로젝트’ 사업 지원 및 원활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부산생명나눔 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독려 등에 협력한다. 아울러 생명나눔 행사에 참가하는 대불련 회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인증시스템(VMS)에 등록해 공식적인 봉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본부장 심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단체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젊은 에너지가 더해진다면 생명나눔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울산불교신도회 새 회장에 윤건우 부회장

**2월 7일 정기총회서 선출**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2월 7일 울산불교신도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윤건우 부회장을 제28대 신도회장〈사진〉으로 선출했다.

윤 신도회장은 울산광역시 초대의원 및 제2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윤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눔과 화합을 이루는 신도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불자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울산불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홍법사, ‘아메리칸 선명상’ 워크숍

**2월 20일부터 한 달간**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2월 20일과 3월 20일에 미국 위앙종 선명상 지도법사 현안 스님을 초청해 ‘아메리칸 선명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초심자부터 경전 독송과 다라니 기도에 익숙한 불자, 명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현안 스님은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명상의 통찰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지도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qHrvWZysc4oXDm576) 및 전화(010-3012-3730)로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관음선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2월 7일 원통보전서**
**총 3700만원 쾌척해**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 스님)가 2월 7일 부산 관음사 경내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37명의 학생(스님 13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11명, 대학원생 7명)에게 총 37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관음선행장학회는 1991년 정금강행 불자를 비롯해 뜻있는 불자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회로, 설립 초기 자산 1억 원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됐고, 이후 재단법인으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는 2월 7일 부산 관음사 경내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2019년 장학회 자산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 교육, 교양 강좌, 불교 교리 강좌 등을 개설하고, 직접 강의한 강의료 전액을 장학회 후원금으로 기부해왔다. 장학회는 매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출연해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 원씩 지원해왔다. 2024년까지 총 763명의 학생에게 7억 6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지현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여러분들은 가문을 빛내고, 세상을 더욱 향기롭고 맑게 만들어갈 인재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감로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관음선행장학회를 후원해 주신 박문원 이사님과 관음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할 후원자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 선광사, 불교 종사자 자녀 장학금 전달

**2월 6일, 11명에 총 330만 원**



자비나눔 실천도량 부산 사상구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인재 불사의 원력을 실천했다.

선광사는 2월 6일 경내 대웅전에서 ‘을사년 정초 기도 회향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선광사는 부산지역 불교계 종사자 자녀 11명에게 장학증서와 각 30만 원씩, 총 330만 원을 전달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다이아몬드도 갈고 닦지 않으면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다”며 “원석을 정성껏 다듬어야 빛나는 가치를 가지듯, 우리 청소년들도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성과와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 꿈과 희망을 품고 노력해 좋은 인연의 결과를 맺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선광사는 정초산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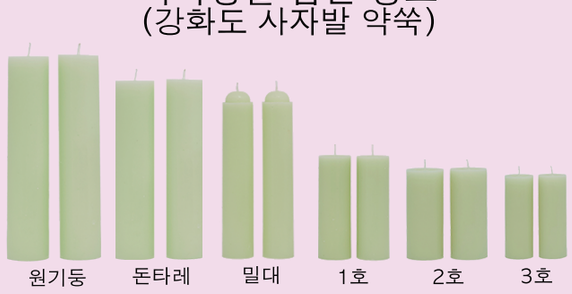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PC 팜 원통초



연꽃향을 담은 양초



밀랍향을 담은 양초



밀납향을 담은 초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